

큐라클, 최고재무책임자(CFO) 박종현 부사장 영입

▶ NH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, 에퀴티세일즈본부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

<2022-09-22> 신약 개발 기업 큐라클(365270, 대표이사 유재현)이 최근 박종현 최고재무책임자(CFO) /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.

신임 박종현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NH투자증권에서 리서치센터장, 에퀴티세일즈본부장 및 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다.

박종현 부사장은 “30여년 이상 기업현장과 자본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각종 사업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끔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큐라클의 제2의 도약을 견인하겠다”고 전했다.

한편 큐라클은 지난 달 미국 식품의약국(FDA) 제출한 당뇨병성 황반부종'에 대한 임상 2a 상 시험을 신속하게 완료하고,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글로벌 2b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며,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2상 임상 진입에 필요한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사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.

큐라클 관계자는 “자본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재무 전문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박종현 부사장을 CFO로 영입하게 됐다”라며 “큐라클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재무전략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